

巫俗的 解析을 통한 濟州道 傳統住居空間의 理解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raditional house in Cheju by Shamanist Interpretation

최재권 * / Choi, Jae-Kw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space construction in traditional houses in Cheju under the premise of house being the dweller's place. I studied it by shamanist interpretation. First I understood the quality and meaning of space by the theory of space and shamanism. As the method of study, I studied the space theory and shamanism and had a general idea of them. And then I looked upon the concept of space as residence and analyzed the traditional

houses in Cheju.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is. I considered shamanism as a part of their way of life. Thus shamanism was a chief idea of Cheju people's thought, religion, and a view of the world. Naturally shamanism was the chief principle with which Cheju people constructed the residence. Because this cultural social aspect of shamanism, it is understood and used as the principle of space construct in modern architecture of Cheju.

키워드 : 전통주거, 무속, 장소

I. 序論

건축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적합한 定住環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사조와 양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건축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의 결과이며 한 사회의 이상과 신앙, 세계관, 우주론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로서¹⁾ 전체 인간환경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인류학적 가치를 지닌다.

건축을 문화가 반영되는 구체적인 표현물로 볼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은 건축을 기계적, 기능적, 합리적 측면으로 보는 것 이외에 문화적 접근의 한 방법으로서 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전통속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로 파악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에 대한 건축 연구는 物的 측면에만 너무 치중되어 전반적인 생활을 통한 다양한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생활의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安息處로서 주거는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이것은 기후, 자연조건 및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그 구조를 달리하면서 발전하였다.

제주도는 지리적, 기후적인 자연환경 뿐아니라 종교, 생활양식의 정신문화에 있어서도 한반도와 차이가 나므로 인해 독특한 주거가 형성되어 왔다. 제주도 전통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측면의 기능만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사상과 신앙, 세계관을 구현하였으며 자연환경과 잘 조화된 물리적 형태의 儀禮行爲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만들었다.

특히 제주도의 巫俗信仰은 오랜 전통속에서 생활 양식의 일부로서 문화의 저변을 형성시켜온 지배적 사상으로 생활의 모체가 되는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생활속에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전통건축의 해석 측면에서 무속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무속신앙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가 다소 부정적이나 이는 巫俗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속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네 삶의 보편적 형식이었으며 한국문화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전통주거 공간 조직원리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소의 공간과 무속의 사고개념을 연결하여 주거의 공간성격 및 의미를 파악한다. 연구의 방법은 장소의 이론을 토대로 무속신앙에 대한 일차적 고찰을 하며 그 개념을 정리하고 추출된 개념을 주거공간의 의미도구로 삼아 제주도 전통주거공간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人文社會的 觀點에서 무속이 주거공간구성원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II. 場所의 意味

2-1. 場所의 概念

자연환경, 물리적환경, 사회환경 중에서 인간의 주거생활에 적합하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부분을 定住環境이라하며 이것을 건

* 정희원, 제주관광전문대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1) Amos Rapoport, 건축문화의 기원, 윤일주 역, 기문당, p.31.

축에서는 총괄하여 환경이라 부른다.

인간은 환경의 비어진 부분(Void)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며 停止, 移動에 따라 주변환경과 관계를 형성해 나아간다.

따라서 인간행위는 공간 속에서 운동과 배경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간이란 빈 용기에 불과한 것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공간은 장소의 여건을 마련하지만 그 의미는 공간으로써가 아닌 특정 장소의 개념으로써 주어진다²⁾

따라서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로 知覺될때 그것은 장소가 된다. 이때 장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되고 고유한 구조적 성격을 갖으며 주변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낸다.³⁾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장소와 의미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소의 정신을 파악해야한다.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과 주어진 환경과 의미있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활동에 배경적 역할을 하는 환경은 안정된 이미지 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장소로 부각되며 인간실존에 하나의 중심이 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實存은 삶과 장소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신의 존재를 주위의 환경과 장소의 인간적 차원을 관련시킴으로서 그 존재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도 특별한 장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그 장소의 성격은 드러난 사실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⁴⁾

2-2. 場所의 空間組織

인간의 행위는 공간 속에서 복잡한 패턴을 나타낸다. 그 패턴은 시간과 함께 끊임 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공간내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움직임과 멈춤이라는 두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움직임은 활동의 軌跡과 방향에 연관이 있으며 멈춤은 방향의 지표점과 초점에 관련되는것이다. 중심은 모든 수평적 움직임이 끝나는 점이다. 이들을 포괄하는 활동은 일정한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의 실존공간의 구성요소를 C. Norberg-Schulz에 의하여 제시된 중심, 통로, 영역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이 장소의 개념은 공간에 대한 실존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들이 서로 결합될 때 비로서 공간은 인간의 현실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다.

첫째, 중심은 모든 움직임에 있어 하나의 指標로서 인간 행위의 초점과 연관을 맺고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게된다.

따라서 중심은 움직임의 과정의 하나의 고정점으로 작용하고 방향성을 갖게한다. 중심은 인간에게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 무언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을 뚜렷이 나타낸다. 따라서 중심은 외부의 혼돈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중심을 공간적으로 말하

면 행위의 장소 즉, 특별한 활동의 장소가 되며 사회적 작용이 일어나는 場所인 것이다.

둘째, 인간이 환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자기의 목적을 위한 행동의 방향으로 통로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로는 인간 움직임에 의한 궤적으로서 환경을 체험하고 관계형성을 하기위한 운동의 공간이다. 통로는 움직임에 대한 表象이며 이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은 환경과 실질적인 접촉을 하게되며 이것으로 인간환경의 의미를 갖게된다.

셋째, 영역은 완결된 공간이라기 보다 중심과 통로에 의해 이루어진 범위이다.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의하여 한정되기 때문에 주변과의 구별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그것은 경계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로 구별됨으로서 장소의 潛在性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장소를 점유한다는 것은 통로와 중심에 의해 환경을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림 1> 場所의 空間組織

III. 場所와 巫俗의 思考解析

3-1. 巫俗의 概念

무속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내재되고 전승되어온 민간신앙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장소에 정주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제공하여 왔다.

무속의 신앙적 성격은 자연의 우주질서와 인간생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同質同量의 것이라고 믿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과는 엄격한 구별이 있을수 없으며 신의 세계와 인간세계가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니고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상의 무속은⁵⁾ 높은 정신적 이상이나 내세적 구원을 통하여 현실생활의 문제를 초월적인 신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했던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무속은 萬神殿의 종교이다. 따라서 天, 地, 水 등과 관련되어 거시적인 우주론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질서체계를 형성한다. 무속에 나타난 우주는 천상, 지상, 지하로 三分된다. 이들 三界에는 각기 해, 달, 별이 있어서 天上이나 지하에도 지상과 똑같은 세계가 있다고 믿는것이다. 天 上界는 지상의 수직상에 위치한 세계로 지상에서 수직으로 왕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우주관에 의하면 지상계와 천상계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천상의 신이 강림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무속은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類型存在의 근원을 카오스(chaos)로 부터 보는 사고이다.⁶⁾

2)Edward Relph, Place and Placeness, London Pion LTD, 1983, p.8.

3)C.Noberg-Schulz, 거주개념,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p.14.

4)C. Norberg-Schulz,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정영수 역, 세진사, 1985, pp.458-459.

5)김인회, 한국 무속사상 연구, 집문당, 1987,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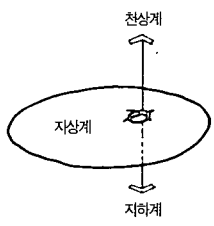
카오스(chaos)는 어둠의 혼돈 뿐이어서 공간의 시작과 끝이 없으며 또한 시간도 없는 세계로서 무공간, 무시간의 永遠界를 말한다. 즉, 하늘, 땅의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지 않은 채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카오스는 무형이면서 우주의 原質 존재이기 때문에 不可視의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무속사교의 근본은 존재근원인 카오스에서 유한적 존재의 세계인 코스모스(cosmos)로 코스모스에서 다시 카오스로 回歸되는 연결체계 위에서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어 간다고 믿는 순환의 패턴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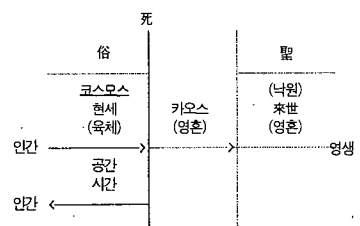
이것은 무속의 영혼관과 내세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二中的 결합체로서 영혼이 무형의 기운으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육신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생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 상태를 죽음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혼의 힘으로 믿는다.

영혼에서 可視性이란 존재가 공간이 전제가 되고 시간에 의해 제한된다. 영혼이 영원존재가 되는 것은 육체라는 가시적 존재가 죽음을 통해 공간성이 소멸되므로써 시간성을 초월하여 공간적 유형존재의 근원원질인 카오스로 되돌아가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영생을 비는 곳은 무속의 상징적 형태이다. 그것은 존재의 순간존재인 코스모스의 俗으로부터 영원존재인 카오스의 聖으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존재인 俗의 공간과 시간질서를 소거하면 카오스의 영원존재인 聖으로 회귀하는 재생적 순환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와같은 카오스의 순환적 영혼관을 전제로하여 내세관이 성립된다.



<그림 2> 巫俗에 나타난 三界



<그림 3> 存在의 循環性

3-2. 場所와 巫俗의 解析

인간 삶의 안식처로서 주거는 세계속에서 의미의 중심이된다. 이것으로 볼 때 주거는 물리적 가치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形而上學的으로 영적세계의 존재를 통하여 의미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측면에서 장소와 무속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은 의미를 나타내는 초점으로서 주변의 환경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중심의 관념은 어떠한 공간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신성한 장소는 주변과 구별되는 非均質性을 나타내며 이것은 轉移되는 영역로서 상징된다. 따라서 주변과는 구별되는 중심점에 天上界를 지향하는 장소가 형성되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중심은 단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가진 단위 영역으로

서 내부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중심은 무속의 질서체계에서 볼 때 수직적 우주관을 지니며 기둥, 산, 거목, 신간 등에 의한 수직축으로 형상화된다. 이것들은 地上과 天上의 교섭이 발생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되어 무속의 의제가 배풀어진다.⁷⁾

이처럼 수직축은 공간에 신성한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超然, 分離, 聯想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장소에서 중심은 초월을 향하는 출구로서 주변과는 구별되는 영역내의 聖화된 지점으로서 특성을 나타낸다.

둘째, 중심의 개념과 다르게 통로는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의 수평축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정한 방향의 운동에 따른 물리적, 정신적 역동성을 표현한다. 즉, 통로는 한지점에서 다른 지점에서의 이동, 안과 밖의 연결을 표현한다. 또한 통로는 외부에서 중심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하나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로를 통한 장소의 진입은 금지되거나 통과되는 일정한 규칙으로서 禁忌, 正화에 의해서 통제되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징적 呪術 또는 종교적 성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공간의 전이는 단순한 물리적 통과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로는 進入과 退去를 부여하는 성역에 이르는 험난한 길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通過儀禮로 받아들여진다.⁸⁾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통과례는 冠婚喪祭가 있다. 이것은 출생에서부터 일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들어가는 매 단계의 관문을 거칠 때 마다 행하여지는 사회적 통과례이다. 통과 개념은 과거의 내용을 극복 또는 정화하는 것으로 이 의식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진입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넓은 공간, 자연 그대로의 무한한 공간에 대하여 영역을 확보하여 장소의 의미를 가지려한다. 영역은 중심과 통로의 통합성에 의해 內,外관계가 성립되며 뚜렷한 경계를 필요로한다.

인간은 외부에 대해 내부가 명확히 설정될때 정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세속적인 외부에 대한 신성한 차원으로서 내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개념은 장소의 각 단계에서 공간구성이나 구조에 깊이 관계가 된다. 무속에서 영역적 의미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영원성의 카오스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내부공간을 거룩한 聖으로 보며 외부공간을 순간존재인 코스모스의 俗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현실세계인 俗과는 상반되는 이상적인 세계의 聖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러한 의미는 신을 항상 그장소에 머물게 하여 자신의 실존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인간적 열망으로 볼 수 있다.

3-3. 場所의 空間과 巫俗의 思考 比較

지금까지 장소의 개념과 무속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고정점, 안전한 곳으로서 중심은 무속의 사고 속에서 靈的인 것과 교섭이 가능한 지점이며 초월적인 것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출구로서

7) M. Eliade, 聖과 俗-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학민사, 1991, pp.9-20.
8) 정영철, 이해성, 통과 의례로 본 제주도 전통주거공간의 경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2호, 1991, p.85.

6)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9, p.302

나타났다. 그것은 신성시되는 수직적 축에 의해서 상징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轉移가 이루어지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행동방향, 움직임의 궤적으로서 통로는 무속에서 중심에 이르는 통과 의례를 요구한다. 이 의례는 금기와 정화의 통제적 과정을 거치며 일상과 차단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의 진입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균질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非均質의 공간으로의 전이인 것이다.

장소의 잠재성으로서 영역은 중심과 통로의 통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과 밖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세계의 코스모스가 아닌 카오스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표 1〉場所의 空間과 巫俗思考의 比較

場所의 空間	巫俗의 思考	
	내용	상징
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靈적인 것과의 교섭이 가능한 지점 초월적인 세계로 통하는 出口 수직적 상징물의 가시화 새로운 존재로의 전이가 발생 	수직성
通路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에 이르는 통과 의례 통과의례에 따른 禁忌와 淨化 새로운차원의 진입 비균질성 	통과의례
領域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과 통로의 통합 안과밖의 구분 非現實의 세계 코스모스밖의 카오스 	비현실적세계

IV. 濟州道 傳統住居空間의 巫俗的 解析

무속은 공동체 속에서 자생하여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이다. 이러한 무속은 제주도 신앙의 土着的 요소로서 제주도민의 의식을 지배해왔다. 제주도는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을 신격화 하여 숭배하는 민간신앙이 많았으며 그것은 육지의 타지역보다 다양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무속은 현재까지도 원형대로 잔존하며 주민의 생활속에 기능하고 그 내용과 형식이 육지와는 달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무속이 성행했던 것은 그 자연환경 조건에 따른 도민의 생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화와 생활양식이 島嶼型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제한과 조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적 방편으로 무속은 절대성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특히 家神과 洞神을 모시는 민간신앙이 숙명적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주거 내에서 행해지는 家神信仰은 주거의 공간구성과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제주도 문화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무속의 祭義는 주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생활공간에서 내면적 의미로 작용하며 신적 위치에 따라 공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이 祭神간의 위계질서는 그 사회구조나 세계관, 공간관을 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장에서는 제주도 전통주거를 장소의 공간과 무속의 사고 측면에서 그 특징과 의미를 파악한다.

4-1. 中心的 側面

제주도의 전통주거는 五方의 중앙에 위치하며 이 중에서 穴에 해당

하는 상방의 생기등은 성주신이 좌정하여 천지교통하는 주거의 중심, 聖의 중심인 것이다.

상방은 평면상으로 볼 때 안과 밖 즉, 방과 마당사이를 연결해주는 주거의 중심적인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상방은 집안의 다른곳 보다 특히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어 家神중에서도 으뜸되는 성주신이 관할하는 영역으로서 집전체의 위계상 최상위의 공간이다.

상방은 다른 방과 비교하여 매우 개방적인 공간이다. 여기에는 큰 구들과 작은 구들, 창방과 고팡으로 연결되는 각출입구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앞문전 부터 뒷문전까지 연결되며 안뒤나 마당으로도 통할수 있게 되어 있다.

성주신은 주거의 중심이 되는 마루에 봉안되는데 風水地理 측면에서 볼때 穴은 주택이 세워지는 장소이고 이 穴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상방이 되며 이것의 座는 마루에 해당된다.⁹⁾

따라서 마루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며 대부분의 儀禮는 여기서 집행된다. 성주신은 상방의 중심부로서 마루의 상부에 모셔진다.

마루공간은 주거의 중심으로서 인접하는 방과는 달리 수직축이 형성되어 공간의 容積이 상부로 솟아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부분은 대들보에 성주신을 봉안하는 성격으로 보아 지상의 세계와 구별되는 초월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마당은 주거의 중심으로서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 등 개별주거 형태의 건물에 의해 에워싸인 공간이다. 이 마당은 집터와 집을 지켜주는 地神이 모셔진다. 마당은 주거의 전체에서 실제적인 중심이 된다. 주거의 한 가운데 비어 있는 마당을 둔다는 것은 자연의 주체인 하늘과 땅을 간직하려는 것이다. 이는 육지 주거의 마당이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으로 나누어지는 단계적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위계를 갖는다.

4-2. 通路의 側面

D.Frey는 모든 건축은 목적과 진로라는 두 개의 계기를 공간 형식이라고 하였는데 제주도 전통주거에는 바로 이러한 목적과 진로라는 두 모티브가 내재되어 있다.

무속의 형식으로서 통과 의례는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세계로 부터 다른 세계로의 이동에 수반된 모든 儀禮이다. 이러한 의례는 신이 내왕하는 길을 청소하여 맞이하는 초감제의 질침, 새다림이 있듯이 제주도 주거공간에서 통로는 수평축이 형성되어어 올래를 통해 안으로 진입해갈수록 폭과 깊이가 깊어져 이동에 따라 완급, 폐쇄, 트임의 공간 체험을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주거의 내,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전이공간인 올래는 담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적극적인 형태를 가짐으로서 시각을 한정하고 긴장을 준다. 올래의 어귀에는 어귀돌이 놓인다. 이것은 주택의 입구가 시작됨을 명시해주는 기능을 갖으며 양쪽의 어귀들 사이에는 주거의 내,외부의 확실한 경계를 긋는 상징적 의미의 지방돌이 놓인다. 또한 집안과 집밖의 경계인 일종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이 있다.

올래목은 올래 끝이 곧지않게 구부러져 있어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

9) 村山智順, 조선풍수, 최길성 역, 민음사, 1990, p.36.

볼수 없도록 하는 屈折된 형태의 접근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거의 밖과의 세속적인 공간에 대해 안쪽의 신성한 공간으로의 진입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주거내부에도 최고의 家宅神인 상방의 공간으로부터 축신까지 진입에 따른 의례가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전통주거는 마을에서부터 주택의 내부의 사적공간까지 이동공간의 전이가 정연한 질서를 이루면서 안길-올래-올래-목-상방-안뒤로 이동간에 위계적 수평축이 존재한다.

세계의 중심인 주거는 성역이며 절대적인 영역으로 그 중심에 이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이 뒤따르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통과 의례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경계를 통해서 聖別되는 것으로 俗차원에서 聖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4-3. 領域의 側面

제주도의 무속에서 주거는 신이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집밖에는 잡신들이 있어 물리쳐야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무속의 제의는 안곳과 바깥곳을 따로 마련하여 집의 안과 밖에서 각기 이루어졌다.

또한 신들은 일반신, 부락신, 일가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신들은 오합의 무리가 아니라 위계의 上, 下가 있다. 이 위계의 義際는 젓다리라는 종합적 큰곳에서 발견된다.

젓다리란 제와 다리의 복합명사인데 다리는 橋의 뜻이외에 질서, 순서라는 뜻이 있어 젓다리는 제의 순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¹⁰⁾ 이와같이 무속에서 젓다리의 순서에 의해 신들의 위계가 있듯이 그 관할의 생활공간도 위계에 따른 영역을 갖는다. 영역에는 각단계마다 상징적인 경계로서 문이 존재하며 이것에 의해 안과 밖이 엄밀하게 구분하다.

제주도 전통주거는 자연상태에서 인공적인 경계를 창출하여 外界로부터 단절된 하나의 세계를 확립하며 물리적 영역과 함께 각영역의 신들이 좌정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주거의 평면은 겹집형식으로 一字形 평면을 나타내며 曲家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형인 삼칸집에서 보면 사회적 공간인 상방을 중심으로 해서 앞은 대문으로 통하고 완충공간인 되는 마당으로 연결이 되고 뒤쪽은 뒷문을 통하여 안뒤로 연결된다. 상방의 한쪽은 구들과 고팡이 있고 다른 한쪽은 정지가 있다.

상방의 성주신은 天上神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믿어져 신성시 되었다. 큰구들은 여성공간으로 출산, 임종 그리고 결혼때 신부를 맞이하는 공간으로 아래목에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삼승할망이 벽 한쪽 구석의 상부에 봉안 된다. 부엌의 부뚜막에는 조왕신이 있고 변소에는 축신이 있어 집안의 사주와 관계가 있어 그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주거내부의 모든공간은 젓다리에 따라 곳곳에 가택신이 좌정해 있고 그 신들을 위하고 섬김으로서 가내가 평안하다고 믿었다. 이것은 주거 전체를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神聖空間으로 여기는 이 중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주거내부는 생활공간의 중요도에 따라 신의 위계가 정해져 있어 최고 가택신으로부터 다른 하급공간

까지 뚜렷한 경계를 그으며 영역성을 형성하였다.

〈표 2〉 濟州道 傳統住居空間의 巫俗의 解析

分類	巫俗의 思考	
中心的 側面		
	상방은 성주신 좌정하는 주거의 중심 聖의 중심, 상방은 수직축이 형성되어 공간의 움직임이 상부로 솟음	마당은 주거의 중심으로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에 의해 에워싸인 공간, 주거 전체의 실질적인 中心
通路的 側面		
	이동의 轉移가 정연한 秩序를 이루며 위계적 수평축 형성.	俗의 세계에서 聖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領域的 側面		
	주거내부의 모든공간에는 家神이 좌정하는 신성공간으로서 인간과 神이 공존하는 二重性	경계를 확보하여 外界로부터 단절된 하나의 세계구축, 물리적영역과 함께 각 領域의 신들이 좌정

V. 結論

현대사회에 있어 무속신앙의 형태는 접하기 힘든 사라져가는 문화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오랜 전승력을 갖고 우리와 삶을 같이 하여온 것이다. 따라서 무속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생활관이 배어 있는 것이라 볼수 있다.

특히 제주도 전통주거속에 생활양식의 일부로 문화의 저변을 형성하여온 무속은 제주도민의 사고와 신앙, 세계관을 내포하는 지배적 사상으로 생활의 母體가 되는 주거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소의 공간과 무속사고에 따른 논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중심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로서 영적인 것과 교섭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초월적 세계로 소통하는 출구로서 상징된다. 통로는 일상의 세계에서 차단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며 禁忌와 淨化의 수단으로 통과 의례가 나타난다. 영역은 안과 밖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내에서 유한적 존재에서 영구지속의 무한적 존재로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있는 현실세계와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추출된 중심, 통로, 영역 개념을 제주도 전통주거에 적용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수 있었다.

중심적 측면에서 제주도 전통주거의 상방은 집안의 다른곳 보다도 특히 신성한 곳으로 삼았다. 그곳은 家神 중에서 으뜸되는 성주신이

1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pp.186-190.

관할하는 영역으로 집전체의 위계상 중심인 최상위 공간이다. 따라서 상방은 타공간에 비해 容積이 상부로 솟아 있으며 이것은 지상의 세계와 구별되는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마당은 地神이 모셔지는 구역으로 육지 주거와 다른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로 배치되는 위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전체에서 사실상 聖의 중심에 해당된다.

통로적 측면에서 제주도 전통주거는 안쪽공간이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신성공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밖의 속된 세계에서 안의 신성한 세계로 진입하는 通過儀禮의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주거로 신이 내왕하는 길은 마을에서 부터 주거의 내부공간까지 이동간의 정연한 질서를 이루며 안길-올래-올래목-상방-안뒤로 이어지는 위계적 수평 방향의 축이 형성되어 육지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영역적 측면에서 제주도 전통주거는 외부로 부터 단절된 하나의 세계를 확립하며 물리적 영역과 함께 각 영역의 신들이 좌정해 있다. 또한 상방의 성주신으로부터 축신까지 생활공간의 중요도와 신들의 위계에 따라 상위공간 부터 하위공간까지 뚜렷한 경계를 그으며 영역성을 형성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오랜기간동안 무속은 제주도민의 주거 공간구성을 지배해온 사고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온 원리로 파악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人文社會 측면에서 접근되어진 무속신앙의 해석은 주거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무속에 따른 공간구성 방식이 현대의 공간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지 무속적 측면만을 해석하므로서 복잡한 주거공간의 세부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각도의 분석를 통하여 전통주거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상하, 열화당, 1986.
3.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9.
4. 김태곤, 한국무속 원형 연구, 집문당, 1982.
5.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6.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7. 村山智順, 조선풍수, 최길성 역, 민음사, 1990.
8. C. Noberg-Schulz,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정영수 외 역, 세진사, 1985.
9. C. Noberg-Schulz, 거주 개념, 태림문화사, 이재훈 역, 1991.
10. Amos Rapoport, 건축문화의 기원, 윤일주 역, 기문당, 1989.
11. M.Eliade, 聖과 俗-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학민사, 1991.
12. E.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td, 1983.
13.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1996.
14.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15. 김병기, 한국전통건축에 표출된 민간신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87.
16. 박재하, 한국 민간신앙 상징체계의 장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17. 정영철, 이해성, 통과 의례로 본 제주도 전통주거공간의 경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2호, 1991.

〈접수 : 1997. 11. 5〉